

# 화장품 원료생산시설 조성 시동

### 남원시, 사업비 60억원 투입 올 하반기 설계용역 후 내년까지 완성

남원시가 중·장기 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마무리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최종단계인 '천연물 화장품원료생산시설'을 내년까지 구축해 화장품산업의 본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부지 3,416㎡에 연면적 1,659㎡의 지상 1층 규모의 천연물 화장품원료생산시설로, 원료의 추출과 농축, 정제·발효·건조·포장시스템을 갖춘 생산본동과 지원동이 들어선다.

또한 화장품원료생산시설은 올 하반기 설계용역을 마치고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하고,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 화장품원료협회(EFIC)의 화장품원료GMP인증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올해 필요 사업

비 20억원 중 국비 10억원과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물자원에 기반하는 천연물의 화장품 원료화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나고야 의정서는 식물, 동물, 곤충, 천연물과 바이러스, 미생물 등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잘 준수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져야 한다.

천연물 화장품원료생산시설은 국내 자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원료주권을 확보하고 외래식물을 원료로 수입하는 국내 화장품 원료업체가 이를 국내 식물자원으로 대체하는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2011년부터 화장품산업

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노안산업단지에 화장품집적화단지를 조성해 화장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02번째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증을 받은 화장품완제품생산시설과 화장품소재원료의 발굴과 연구개발, 화장품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화장품원료생산시설을 끝으로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구축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술냄새 줄인 유기농쌀 기정떡 출시

### 순창, 'K-FARM 귀농귀촌 박람회'서 호평받아 판매가능성 입증

순창군이 기능성 효모를 이용한 냄새 없는 유기농 쌀 기정떡 개발해 성공했다.

순창군이 이번에 개발한 기정떡은 최근 열린 'K-FARM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어 판매가능성을 입증했다.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황숙주)과 공간애복(김보성 대표)이 공동개발한 이번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한국형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 SRCM1000518)를 사용해 만든 발효한 막걸리와 쌀가루를 재료로 만든 제품이다. 기존 기정떡 고유의 술냄새(풍미)를 저감화하였고 식감을 살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식품으로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발효숙성을 통해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잘된다는 특징이 있어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군은 기정떡이라는 틈새시장과 여성층이라는 맞춤형 타겟을 설정해 성공적 산업화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이 보유한 다양



순창군이 기능성 효모를 이용한 냄새 없는 유기농 쌀 기정떡 개발해 성공한 가운데 'K-FARM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한 한국형 유용균주를 이용한 발효산업은 발효떡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순창의 100년 먹거리 발효미생물산업은 더욱 성장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산업용 유용균주를 5000원주 이상 발굴해 자원화 하는 등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주)기쁜샘의 새콤달콤 초고추장, 순창뚝, 다시마 고추장을 비롯해 (주)BFIN에 떡볶이소스 등의 제품에 기술지원을 하는 등 총 28개를 지원해 30개의 시제품을 개발해 관련 시장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푹푹찌는 무더위, 임실로 오세요”

### 1일~5일 물놀이장 개장...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도

“무더운 여름, 아이들과 함께 임실치즈테마파크 물놀이장으로 놀러오세요”

임실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탈피하기 위한 시원한 물놀이 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무더운 여름 방학을 맞아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아쿠아페스티벌을 연다.

임실군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아쿠아페스티벌은 해마다 관내 어린이들은 물론 인근 지역민들이 찾아와 시원한 여름나기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에어바운스 풀장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메인무대에서는 어린이 인형극과 난타공연, 마술공연, 버블공연, 풍선아트, 서커스 저글링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시원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매일 2회 행사장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별 이벤트로, 임실N치즈체험을 할인된 가격에 할 수 있는 '임실N치즈체험 빅 이벤트'가 마련된다.

또한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5곳에서 스탬프를 찍고 전복투어패스카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무더위로 지친 올 여름엔 아이들과 함께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물놀이도 하고, 맛 좋고 영양 좋은 임실N치즈와 맛있는 치즈피자 등도 맛보시면 좋겠다”며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여름에는 물놀이 축제를, 가을에는 임실N치즈축제를, 겨울에는 산타축제를 열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 폭염속 현장행정 동분서주

남원시 김동규 부시장이 폭염 속에서도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며 시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제14대 남원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김 부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의 소신에 따라 7월 하반기 시정 주요현안 보고를 받은 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되었으며, 지난 31일 남원에촌을 시작으로 14여개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현장에서 김 부시장은 “남원시는 무한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아주 높기에 모두가 얼마나 잘 뛰어가는지가 중요하고, 지금까지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많은 콘텐츠가 담겨져 운영되도록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시장은 도시과 도시공영팀과 백두대간 정시관 운영팀과 각각 간담의 시간을 갖고 현안사업부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및 당부사항을 듣고 격려하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남원시는 “앞으로도 간부들이 주요 현안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결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민선7기 성과 창출, 현장에서 답 찾는다

### 노홍래 순창부군수 사업장 점검

노홍래(사진) 순창부군수가 민선 7기 성과 창출을 뒷 받침 하기 위한 현안 사업 챙기기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 31일 수체협센터 사업장을 시작으로 8월 3일까지 15개 부서 43개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군정주요사업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사업장 점검은 노홍래 부군수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함께 문제점을 논의하는 '현장에서 답찾기'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방문은 수체협센터 건립사업장 방문을 시작으로 팔덕지수변개발사업, 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사업, 훈몽재, 가인연수관,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수체협센터는 강천산의 관광자원을 획기적으로 넓혀주고 강천 음용천수리는 순창만의 힐링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음용천수 등 지원을 활용해 예방차원의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관광



화하는 사업으로 90여억원을 투자해 온천치유 누리실, 스파체험실, 테라피실과 온천광장, 족욕장, 야외풀, 족욕 산책로 등이 들어서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팔덕지수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94억원을 투입해 전체 97개 객실의 관광호텔, 동굴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 부군수는 사업장을 꼼꼼히 살피면서 폭염에 안전사고 없이 사업 추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 과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등을 주문했다.

노 부군수는 “순창의 현안 사업장을 방문해 보니 순창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선 7기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창출하는 시기인 만큼 사업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참미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남원시는 최근 남원참미 재배 농가, 남원농협, 남원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쌀 생산운영관리 및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경기도 안성마춤농협 라이선센터, 군산 쌀 지리특성산물 생산단지, 농협 하나로클럽 전주점을 방문해 고품질 쌀 생산·가공·유통 노하우를 보고 듣는 등 민간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설 운영의 규모화를 통해 거래비용·유통비용을 줄이는 라이선센터, 엄격한 재배매뉴얼 준수로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군산 쌀 생산단지,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자 치열하게 경쟁하는 농협 하나로클럽의 사례는 남원 참미 브랜드 성공을 위한 방향 설정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한편, 이준부 농정과장은 “타시군의 선도적인 농업경영 사례를 확인하고 남원 참미의 성공을 위해 민·관이 서로 소통하며 주요 정보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남원 참미 브랜드의 지속적인 혁신과 당면문제 해결을 통해 소득으로 보장받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